

사진을 통해 보는 우리 모습



▲ 설레이는 기다림



▲ 소리에울의 여는 무대



▲ 유래극



▲ 이화여고 유래극



▲ 권성훈 학우의 발표



▲ 우리의 생각 발표



◀ 경신고 포르메



▲ 장신여고 선교부



▲ 정의여고 에스더



▲ 인천 사랑방교회의 댄스댄스



◀ ▲ 우리가 함께하기 위한 준비(상징물과 선언문)

11월 3일 학생의 날

역사를 품어라, 내일을 열어라!



- 주 최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서울YMCA, 서울YWCA
- 후 원 : 청소년보호위원회

‘학생의 날’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자.



박 종렬 목사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총무

지금까지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내의 문턱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자신만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기회도 대학을 가기 전에는 참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더구나 친구들과끼리도 대학을 위해 경쟁과 성적 때문에 인간적으로 서로 사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 서로 범생이, 날날이 등으로 구분하고 함께 꿈을 나누는 것도 지극히 개인적이다.

이런 때에 오래 전 일제시대의 ‘학생의 날’을 기억하고 현재의 자기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미 ‘정의’, ‘평화’, ‘진리’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젊은 세대의 ‘뜻 세우기’ 조차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유보된 단어로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유보된 생명의 단어들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 모두를 소극적이고 안일한 삶에 안착하고 싶은 나약한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젊음은 모험과 개척정신과 창의력 그리고 진리탐구의 정신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학생들만이 역사의 흐름에 민족을 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력으로 성장해간다.

그러므로 ‘학생의 날’을 오늘 학생들의 ‘뜻 세우기’로 거듭나게 해야한다. 죽어 가는 ‘학생의 날’의 명맥을 되살려 젊은 세대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학생들이 꿈꾸는 세상과 사랑의 삶을 표현하는 날로 ‘학생들의 자치적 운동’을 창조해내는 날이 되어야 한다.

올해의 ‘학생의 날’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조그만 움직임에 불과하다. 다음 해에는 진정 학생들 스스로 학생의 날을 꾸미고 만들어 가는 ‘뜻을 세운 학생들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광주항일 학생운동"

광주항일학생운동은 일본제국주의의 야수와 같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청년학생의 의기와 민족애를 치열하게 보여줌으로써 항일민족해방운동의 선봉적 역할을 하였고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다. 끊임없는 동맹휴학, 조직건설, 단결투쟁을 통해 식민지 노예교육철폐와 민족해방쟁취를 위해 전국적인 항일시위로 물결쳤다.

해방 후에도 학생운동은 4.19 혁명운동, 유신철폐민주화운동, 광주항쟁으로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온몸을 던져 민족의 앞날을 개척하는 등 민족의 횃불 역할을 해왔다.

사회와 역사의 떳떳한 국민으로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한 학생들에게 학생의 날이 기원이 되고 있는 ‘광주항일학생운동’ 전개과정을 살펴보자.

1. 성진회(醒進會)의 결성과 활동

(1) 성진회 결성

광주에서 꺾기한 항일학생운동은 결코 한, 일 학생사이의 충돌이 원인이 된 우발적인 항일운동이 아니다. 당시 광주의 학생운동계에는 학생충돌을 조직적인 항일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춘 비밀결사 조직이 있었다.

이 조직의 전통은 1926년 11월 3일 광주고등보통학교생 9명과 광주농업학교생 7명 등 총 16명이 모여 성진회가 결성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고보) 학생 왕재일과 장재성, 광주농업학교(광주농교) 학생 박인생이 제안하여 1926년 11월 3일 광주 부동정에 있는 최규창의 하숙집에서 광주고보 왕재일·장재성·최규창·안종익·김광용·김창주·임주홍·정우채·채영석, 광주농고생 박인생·정남균·정동수·정종석·김한필·문승수 등 15명이 모여 결성하였다. 성진회 명칭은 “깨달아(醒)나아가자(進)”는 뜻으로 왕재일이 제안하였다.

(2) 성진회의 강령

성진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강령을 채택하고 활동했다.

첫째, 일제의 굴레에서 조선의 독립을 쟁취한다.

둘째,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을 절대 반대한다.

셋째,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요구한다.

(3) 성진회의 활동

매월 첫째와 셋째 주 토요일을 정기집회일로 정하여 사회과학에 대한 책을 읽거나 토론하였다. 각자 매월 10전씩 회비를 내고, 회원을 확대하며 비밀을 엄수할 것을 결의하였다. 성진회 졸업생은 사회에서, 재학생은 학교에서 상호 연락을 긴밀히 취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할 것을 결의하였다.

(4) 성진회의 확대 발전

1928년 김상환, 김보섭, 여도현, 김몽길, 김시성 등이 김시성의 하숙집에서 모임을 갖고 광주고보 학생들을 규합하여 사회과학을 연구할 것을 협의하고 광주 각처에서 회합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여 1929년 6월경에는 20여명에 이르렀다. 광주농고에서는 역시 참가자가 20여명, 광주사범에서도 20여명의 회원이 있었다.

1929년 6월 중순 동경 중앙대학 예과에 유학했던 장재성이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와 독서회 중앙부를 건설하였다. 장재성은 광주고보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한 뒤 방학 때마다 돌아와 성진회 회원들에게 사회과학을 지도하였으며 1928년 광주고보 맹휴 때는 '동경유학생 모교분규 사건 대책강구회' 특파원 자격으로 귀국해 맹휴투쟁에 깊숙이 관여하기도 하였다.

(5) 독서회 중앙본부 조직의 결성

1929년 3월이 되어도 광주 학생들의 분위기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종업식 날이면 학교 곳곳에 일제를 성토했고 식민지 교육을 규탄하는 글들이 뿌려졌고, '조선독립만세' 등의 낙서가 곳곳에 적혀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성진회'는 각 학교로 분산되었던 조직을 일률적으로 독서회와 독서회를 지도 통제하는 중앙지도기관으로 '독서회중앙본부'를 설치하였다.

그들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원은 1주 1회 회합하여 협의하고
2. 중앙부원에 의해 각 학교별로 중앙부와 비슷한 조직과 동일 목적의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중앙부가 이것을 연락 통일할 것,
3. 학교별 조직원에도 중앙부의 존재를 절대 비밀로 할 것,

일반 독서회원도 중앙본부의 존재를 모르는 철저한 비밀조직이면서 동시에 각 학교의 학생 대중들을 널리 조직할 수 있는 이중조직이었다. 이러한 조직은 광주의 각 학교에 만들어졌고, 광주학생운동 이후 검거된 회원 수만 해도 7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2. 광주지역 학생운동의 경험

(1) 1928년 광주지역 대맹휴투쟁

광주고보 5학년 학생 이경채가 친구 박병하와 함께 일본제국주의 타도, 무산계급의 단결과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내용의 선언서, 건전한 사상의 소지자가 되려고 하는 학생제군에게 고함, 자본주의 계급적 고등충복 제군에게 고함이라는 격문을 광주 도처와 학교에 배포하다 발각되었다.

광주고보 시라이 교장은 이 사건의 진상을 듣고 재판도 열리기 전에 이경채의 부친에게 말해 이경채를 권고퇴학시켰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학생들은 학교 당국에 퇴학 이유를 밝히고 이경채가 재판결과 무죄가 되면 복교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라이 교장은 한마디로 거절하였다. 그러자 학생대표들은 김영찬의 집에 모여 동맹휴학을 결의하였고 1928년 6월 26일 1학년을 제외한 전교생이 동맹휴학을 감행하였다. 이것이 1928년 광주지역 대맹휴투쟁의 서막이었다. 당시 학교 당국에 제출한 진정서는 다음과 같다.

1. 교우회의 자치권 인정
2. 물리 화학 교실의 신축
3. 이경채의 제적 사유 해명과 무죄시의 복교
4. 하세가와 외 6명의 무자격 일본인 교사의 축출
5. 조선인 교사의 채용
6. 조선어 문법의 교수
7. 상기 요구조건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경우 시라이 교장은 인책사퇴 할 것

다음날 학교 당국은 긴급 직원회의를 열고 정동화 등 27명을 주동자로 퇴학시키고 281명을 무기정학에 처하였다. 당시 광주고보 총학생수가 500명이었으며 1학년은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참가한 학생모두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굴하지 않고 시라이 교장을 사퇴시킬 때까지 투쟁하였으며 9월 17일까지 계속 맹휴투쟁을 벌였다.

결국 40~50명이 검거되고 재판을 받았으며 10여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39명이 퇴학당하였다. 광주고보에서 일어난 맹휴투쟁이 벌어지자 광주농고도 곧바로 맹휴에 돌입하였다. 광주고보에서도 12명이 퇴학, 103명이 무기정학을 당하였다.

3. 광주학생운동의 폭발

(1) 당시의 국내외 정세

① 국내외 정세

1920년대 후반부터 만성적 불황에 허덕이던 일제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식민지 약탈을 강화하고 1927년 제 1차 산둥(山東) 출병을 시작으로 대륙침략을 본격화하였다. 1929년 10월 뉴욕 증권가의 주가 대폭락으로 일어난 세계대공황은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문화통치의 주창자였던 사이토오 총독이 1929년 8월 다시 조선에 부임하면서 신간회 결성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자치운동이 민족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다시 대두하였다.

② 독립운동 현황

1929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에 걸쳐 일어났던 원산총파업은 국내외 주목을 이끌었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었으며, 1929년 가을부터 다음해 7월까지 계속된 평북 용천군 불이흥업 회사의 서선 농장 소작쟁의는 150명이나 검거된 대표적 농민투쟁이었다. 신간회, 근우회, 조선 총동맹을 중심으로 한 활동도 중앙과 각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2) 광주학생운동 전개과정

① 10월 30일 통학열차 여학생 희롱 사건

1929년 10월 30일 광주를 출발한 통학 열차가 오후 5시 30분 나주 역에 도착하였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출구로 나오는데, 광주중학교에 다니는 일본인 학생 후쿠다, 스에요시, 다나카 등이 광주여고보 학생 박기옥, 이금자, 이광춘의 땀기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하였다. 이들은 열차 안에서부터 계속 희롱하였는데 기차에서 내린 후에도 계속 못살게 굴었던 것이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박기옥의 사촌동생 박준채는 분노하여 역을 나오자마자 후쿠다를 불러 세우고 따졌다.

“후쿠다, 너는 명색이 중학생인 녀석이 아비하게 여학생을 희롱해”

“뭐라고? '센징'인 주제에 뭐라고 까불어”

'센징'이라는 말이 후쿠다의 입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박준채의 주먹은 그의 얼굴로 날아갔다. 센징은 일본인이 조선인을 모욕적으로 부를 때 쓰는 말이었기 때문에 억눌렸던 민족감정이 폭발했던 것이다. 결국 두사람은 난투극을 벌이고 급기야 역광장에 있던 한국인 학생 30여명과 일본인 학생 50여명 사이의 패싸움으로 발전하였다. 한국 학생들의 수가 적었지만 민족적 울분과 악에 받쳐있는 한국학생의 드높은 사기 때문에 부상은 일본학생들이 훨씬 많이 입었다.

② 10월 31일 통학열차안 제 2차 시비

10월 31일 아침 열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박준채를 둘러싸고 시비를 걸었다. 이때 열차에 타고있던 광주고보 학생과 광주농교 학생들이 몰려와 대치하였으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오후 5시 광주를 떠나 송정리로 가는 통학열차 안에서 광주고보생과 광주중 학생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일본인 차장이 달려와 싸우던 학생들의 통학 승차권을 압수하고 일방적으로 일본학생들을 두둔하였다. 결국 한국 학생들의 반일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③ 11월 1일 통학열차 제 3차 시비

오후 4시 30분 통학 열차가 광주역을 출발하려 할 때, 광주중학교 학생 30여명이 야구방망이와 족창, 족검을 들고 유도교사 이다(伊田)의 인솔 아래 전날 일을 복수하겠다고 몰려왔다. 이를 본 20여명의 한국 학생들이 기차에서 뛰어내려 개찰구를 사이에 두고 충돌 직전까지 갔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광주 시내의 분위기는 살벌해져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 모두 몇 명씩 짝을 지어 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다.

④ 11월 3일 제 1차 시위의 발단

11월 3일은 일본 4대 명절의 하나인 명치절(明治節)이어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기념식을 치르도록 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경제 수탈의 성공을 자축하기 위하여 전남산견 육만석 돌파 경축대회를 지금의 광주 공원이 있는 광주신사(神社) 앞에서 열 예정이어서 시내 곳곳에는 현수막과 에드벌론, 일장기가 휘날리고 일본인들에게는 완전한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한편 이날은 음력 10월 3일로 우리 나라 최대 명절인 개천절이어서 학생들의 민족적 울분은 억제할 수 없었다. 또한 이날은 성진회 창립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광주고보 학생들은 명치절 기념식장에서 일본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를 때 침묵으로 저항하였다. 학생들의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학교 당국은 평소 같으면 단체로 했을 신사참배를 개별의사에 맡기고 귀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신사참배도 거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광주일보사로 몰려갔다. 일본인이 경영하던 광주일보는 일제의 기관지나 다름없었으며 그 동안 한·일 학생들간의 충돌사건에서 한국학생들을 매도하고 편파 보도하여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였다. 학생들은 기사의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그 와중에 학생인지 신문사의 직공인지 확실치 않으나 누군가가 운전기에 모래를 뿌렸다.

이와 비슷한 시간에 신사참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광주중학교의 일본 학생들이 광주고보 학생 최상현에게 시비를 걸어 단도로 얼굴을 찌르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최상현을 찢었던 일본인 학생들과 수명의 광주교보 학생들간에 시비가 벌어졌으나 수세에 몰려 광주역 쪽으로 도주하여 광주교보생들이 이들을 추적하였다. 같은 시간에 광주중학교 학생들이 유도교사의 인솔아래 광주역으로 쇄도하며 도주하던 일본 학생들과 합류하였다.

광주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한국 학생들은 위기에 직면하자 방어태세를 갖추고 광주교보 기숙사에 연락하였다. 기숙사 학생들은 몽둥이와 야구방망이, 농기구 등으로 무장을 하고 광주역으로 뛰어갔으며 광주농교생 수십 명도 가세하였다. 서로간에 야구방망이와 농기구를 휘두르는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양쪽 학생 수는 각각 200여명으로 비슷하였으나 한국 학생들의 사기가 높아 일본 학생들이 밀리기 시작하였다. 광주 역에 몰려든 수천 명의 군중들이 "왜놈을 죽여라" 하며 응원을 하고, 광주여교보와 수피아여교생들은 돌을 치마로 날라다 주었다. 결국 광주경찰서에서 기마경찰대와 소방대를 동원하여 싸움은 일단락 되었다. 이 시간이 정오쯤이었다.

⑤ 11월 3일 학생간의 충돌에서 반일 독립투쟁, 시민투쟁으로 발전

11월 3일의 시위운동이 계획대로 성공한 후, 옛 성진회의 핵심 인물들은 광주에서의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문제와 광주지방의 지속적인 투쟁을 위하여 논의하고 '학생투쟁 지도본부'를 건설하였다.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았다.

전국학생, 사회단체 부문 ; 장성천

광주지방학생지도 ; 장재성

전남지방 학생지도 ; 국채진(전남 청년동맹집행위원)

광주의 노동자 동원 ; 박오봉(전남 인쇄노조 책임자)

전남 도내 공업보통학교 교사연락 ; 임종근(보통학교 교원)

외부동지와의 연락 ; 강석원(전남 청년동맹 위원)

운동자금조달 ; 나승규(장성 청년동맹 집행위원)

그리고 투쟁이 진행되는 도중 장재성, 장석천, 나승규, 국채진 등이 모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첫째, 우리의 투쟁 대상은 일본 제국주의이니 투쟁방향을 일제로 돌릴 것.
- 둘째, 광주중학생에 대한 적개심과 투쟁을 일제에 대한 증오와 독립투쟁으로 바꿀 것.
- 셋째, 광주중학생과 대치중인 광주교보생을 해산시키지 말고 광주교보로 집합시켜 적개심에 불타는 학생들을 식민지 강압정책 반대시위운동으로 돌릴 것

광주교보로 돌아온 학생들은 사건의 경위와 사후 대책을 논의하면서 "오늘의 대승리를 동포들에게 알리고 일제 타도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시위를 전개하자"는 주장을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 오후 2시경 300여명의 학생들은 8명씩 스크럼을 짜고 교문을 출발하면서 농기구실과 운동기구실의 자물쇠를 부수고 팽이, 자루, 삽자루, 목검, 장작, 몽둥이 등으로 무장하고 시위를 시작하였으며, 교문 밖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광주농교생들도 합류하였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무기를 보태주거나 호떡, 감, 떡 등을 나누어주며 모두가 학생들의 반일투쟁을 지원하였다.

학생들은 "조선 독립 만세", "식민지 노예 교육을 철폐하라", "일본인 학교를 폐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애국가와 응원가를 부르고 행진하였다. 시민들은 시위대열에 합세하거나 박수로 격려하였으며 점차 광주시민의 대시위로 발전하였다. 당시의 행진가를 소개한다.

" 신천지에 휘날리는 우리 동포야
 길이길이 기다리던 오늘이 왔구나
 무등산에서 단련한 기술로 용감히 적군을 물리치세 "

시위대가 광주중학교를 습격하기 위해 담양가도에 이르렀을 때 경찰이 저지하였으나 시위대는 저지선을 뚫고 계속 전진하였으며 도청에 이르자 100여명의 광주사범 학생들이 합류하였다. 1천명이 넘는 시위대가 광주중학교를 습격하기 위해 도립병원에 이르렀을 때, 100여명의 경찰이 가로막아 실랑이가 벌어졌다. 학생들은 시위를 통해 조선의 독립과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라는 의사를 충분히 표명했으므로 잔인한 왜경에게 쓸데없는 희생을 당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해산하여 학교로 돌아갔으며 광주에는 3일간의 휴교령이 내려졌다.

당시의 신문은 이날 시위 행렬에 참가한 사람이 3만 명에 이르며 시내에 일본인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거리에 나와있던 일본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이날 시위는 10년전 3.1운동이후 최대의 큰 사건으로 보도되었다. 여론이 비등해지자 총독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도를 금지시켰다.

⑥ 11월 12일 제 2차 시위 투쟁

휴교령은 3일이 연장되었고, 광주시내는 계엄령을 방불케하였으며 일제는 학생과 시민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갔다. 11일까지 학생 70명을 검거하여 60명을 구속하였다.

광주학생들의 투쟁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신간회, 조선청년총동맹,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서 사람들이 광주로 내려와 진상을 파악하고 항의하기도 하였으며, 광주학생들은 이 기회에 전국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해나갔다.

당시 격문은 네 종류였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개만 소개한다. 격문 1은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여 주로 교육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격문 2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시위에 대한 일제의 가혹한 탄압실상을 폭로하고 민족해방의 과제를 제기한 것이다.

격문 1)

장엄한 학생 대중이여!

최후까지 우리의 슬로건을 지지하라! 그리하여 쫓기하라!

싸우자! 굳세게 싸우자!

1. 검거자를 즉시 우리의 손으로 탈환하자.
1. 교내에 경찰의 출입을 절대 반대한다.
1. 교우회 자치권을 획득하자.
1.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1. 직원회에 학생대표를 참가시키자.
1. 조선인 본의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1. 식민지적 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라.
1. 사회과학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1. 전국학생 대표자회의를 개최하라.

격문 2)

1. 조선민중아 쫓기하자!

1. 청년대중아 죽음을 초월하고 싸우자!

1. 검거자를 즉시 석방하라!

1. 재향군인단의 비상소집을 즉시 해산하라!

1. 경계망을 즉시 철폐하라!

1. 소방대, 청년단을 즉시 해산하라!

1. 만행의 광주중학을 폐쇄하라!

1. 기서학부형위원회를 분쇄하라!

1. 일본제국주의 타도하라!

1. 피압박민족해방 만세!

11월 12일 오전 9시 첫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광주고보에서 “교우들이 구속되어 철창

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나가서 시위하자”고 외치자 전교생이 모두 호응하여 농기구와 운동기구를 들고 시내로 진출하였다. 같은 시각에 광주농고도 학생전원이 일제히 교문을 박차고 나왔다. 광주여고보에서도 격문이 살포되어 여학생들이 뛰쳐나왔으나 경찰의 제지로 교정에서 기세를 올렸다.

이들은 다음날부터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광주사범에서도 학생들의 동조로 교생실습이 중단되었다. 시위대는 계속 광주형무소로 향했다. 결국 경찰과 대치한 시위대는 무력에 밀려 포위되었으며 강제해산을 당하여 190명이 잡혀갔다. 광주농고생 60여명도 강제해산으로 잡혀갔다. 이날의 광경을 당시의 신문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3일에 대총돌 사건이 생기자 각 학교 당국에서는 6일간 휴학을 선언하여 학생들은 총 돌릴 기회가 없었으나 11일 개학일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는 학생 전부가 등교하였으나 고보에는 등교생이 40여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그 이튿날인 12일에는 의외로 학생 전부가 등교를 하므로 고보 당국에서는 의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 조회식을 하려고 운동장에 총집합 할 때 돌연히 400여 고보생이 학교 창고 속에 있는 깡이와 장작 등을 하나씩 갖고 역시 5열로 열을 지어 가지고 「용감히 싸우라 학생 대중아」라는 격문등 세 종류의 격문을 살포하며 시중으로 나오자 형세가 험악하여 아무 효과가 없었고, 혁명가를 고창하며 행렬을 하고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자 준비하였던 경찰대가 포위하고 조선학생 280여 명을 일시에 검거하여 무덕전에 수용하였는데 동 행렬에 농업학교 학생과 사범학교 학생도 일시에 가담하였고 여자 고보생도 일시에 나가다가 경찰과 학교 당국자에게 감금을 당하여 방성통곡을 하며 혁명가와 강강수월래를 병창하였다.」

그 후 독서회 조직을 연락망으로 하여 12일에 광주고보, 광주농업학교, 광주여자고보, 광주사범학교생들의 대규모 제2차 가두투쟁이 전개되었다. 광주에서의 11월 투쟁은 학생들의 자생적인 투쟁력이 성진회 출신의 청년운동세력 및 그 후신인 독서회 중앙본부의 지도력과 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런 11월 투쟁으로 정식 구속된 학생들은 260여명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광주지방 학생들의 ¼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들은 법정에서도 의연히 투쟁하여 엄청난 형량이 구형되고 선고되는 속에서도 법정이 무너질 만치 고성대소를 하여 법원구내에 일대 소동을 일으켰다고 당시 신문은 쓰고 있다.

⑦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옥중투쟁

제 2차 시위에 가담한 학생이 500여명이었는데 그중 과반수가 검거되었다. 광주에 내려와

있던 사회청년단체 간부 160명도 검거되었다. 심지어는 일본에 있던 학생들까지 잡혀왔다. 광주 학생운동으로 구속된 학생은 총 200여명으로 광주지역 중학생의 5분의 1 정도였다. 광주고보에서는 300여명을 무기정학에 처했고, 광주여고보에서는 17명을 무기정학에 처하자 이에 항의하는 동맹휴학에 참여한 학생 64명도 무기정학에 처했다. 광주사범은 38명을 퇴학시켰다.

광주고보에서는 시험을 거부하여 17명이 퇴학당하였으며, 광주여고보에서도 백지동맹으로 15명이 퇴학당했다. 또한 광주고보에서는 제 3차 시위를 준비하다 발각되어 48명이 퇴학당하였다. 당시 광주고보생이 400여명이었는데 2·3·4·5학년 중 졸업생이 160여명으로, 300여명이 투옥되거나 퇴학당하였다. 수피아여고에서는 시위준비가 발각되어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다.

광주학생운동으로 구속된 학생 수는 총 260명으로 보안법 49명, 성진회 관계자 38명, 독서회 관계 90명, 소녀회 관계 11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법정에서 추호의 굽힘이 없이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재판에 응하였으며, 옥중에서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집단 또는 개인적으로 구호·단식투쟁으로 우리 나라 학생의 반일독립의지를 드높였으며, 고귀한 애국정신을 발휘하였다.

1929년 11월 3일에 시작된 광주 학생운동은 당장 목표, 나주 등 광주와 인접한 지역으로 파급되었고 이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다. 그것은 이미 20년대 들어 전국에 걸쳐 맹휴투쟁이 전개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활발했었고 그를 통해 학생들의 항일의식이 매우 전반적으로 높아있기 때문이었다.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애국 애족의 마음에는 지역에 구별 없이 우리 민족의 마음이 모두 통일되었던 것이다.

목포상업학교는 광주소식을 접하자 즉각 모임을 갖고 광주정세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파견하고 구체적인 시위계획을 모의하여 시위대를 2대로 나누어 1대는 송도공원, 2대는 학교 앞에 모이기로 하고 선전문과 진정서를 만들었다. 11월 19일 '피감금학생 즉시 탈환', '총독부 폭약정치 절대반대', '피압박민족해방 만세' 등이 쓰여진 커다란 붉은 기와 붉은 종이로 만든 깃발 120매를 만들어 배포하고 3종류의 격문 1,500매를 인쇄하여 시내에 뿌렸다. 서울에서는 학생전위동맹의 성원 등이 학생대중의 권리를 호소하는 격문을 살포하였다.

12월 7일 제일고보에서 1. 광주조선학생을 즉시 석방하라 2. 식민지 노예교육을 철폐하라 3. 학우회의 조직과 자치권을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위에 나선 것을 필두로 제2고보, 경신, 중등학교에서 진정서 제출과 성토대회가 열렸다.

당시 서울 경신학교의 투쟁 모습을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12월 9일 아침 9시경 경신학교에서 아침 조회시간에 교정에 물리어 섰던 학생 약 오백여명이 지휘자의 광주학생사건에 대한 입장 연설을 듣자 독립만세의 함성을 지르면서 장사진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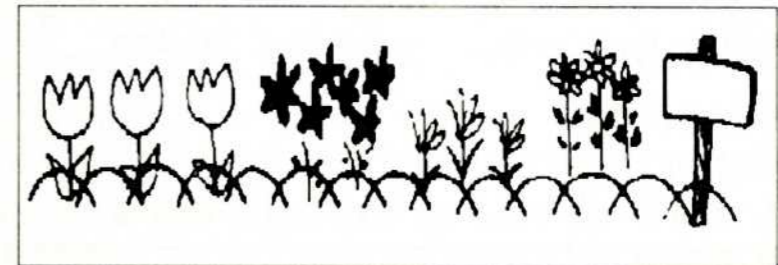
어 그 이웃에 있는 남대문상업학교 앞에 이르러 상학중인 그 학교 학생들에게 도일 행동을 취하고자 권유하는 한편 남대문상업학교 앞에 이르러 또다시 맞은 편 쪽에 있는 혜화동 보성고보 정문에 이르러 만세를 고창하며 시위 행렬에 참가하기를 암시하자 때마침 상학중이던 보성학생들은 역시 만세를 부르면서 수십명 정복 경관이 에워싸고 있는 정문의 포위를 도피하고 마침내 경신학교와 연립하여 돌연히 두 대로 나누어 제1대는 제국대학 앞을 지나 종로 5정목 큰길로, 제2대는 박석고개를 넘어 창경원 앞을 지나 종로로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박석고개를 바야흐로 넘으려 할 때, 또 제2대는 제국대학 앞을 향하려 할 때에 수백명의 물려오는 경관들에게 포위를 받아 950여명이 일제히 검거되었다.」

휘문고보 4백명도 성토대회를 열고 교외로 진출하기 위해 경찰과 충돌했고, 협성실업생 150여명도 성토대회를 열고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10일에도 휘문, 숙명, 근화, 협성실업, 청년학관, 배제 등에서 만세소동이 일어났고 11일에도 이화, 동덕, 실천여학교, 경성농업법적학교, 고등예비학교, 전기학교, 선린한국인학교, 전기학교 등이 성토, 통곡,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부산에서는 동래고보 2,3학년생들이 광주학생의 무조건 석방, 가해자 엄벌 등을 내걸고 맹휴로 들어가 학생 7명이 구속되자 전체학생이 경찰의 교내침입 반대, 퇴학생의 무조건 복교 등을 내걸고 맹휴에 들어갔다.

광주에서 터진 항일학생투쟁은 삼시간에 전국 각처 학교에 번져 함남지방은 함흥상업, 함흥농업, 함흥고보, 평양지방에서는 평양고보, 광성고보, 오산고보, 황해도에서는 해주고보, 사리원농업, 충남지방에서는 공주고보, 충북지방에서는 청주고보, 청주농업, 전북지방에서는 전주고보, 전주농업, 경북에서는 대구고보, 경남에서는 부산제이상업학교 등 거의 전국에 걸쳐 맹휴가 일어나지 않은 학교가 드물다.

이 항일투쟁에 참가한 학교 수를 보면 소학교 54개교, 중학교 136개교, 전문교 4개교였고 참가한 학생 수는 5만4천여명, 피검자 1642명, 무기정학 2,330명, 퇴학처분 582명에 이르러 3·1운동 이후 일어나 최대의 항일학생민족해방운동이었다.



■ 광주학생운동 기념탑 비문 ■

단기 사천 이백 육십 삼년 십일월 삼일.

이 날은 광주 학생들이 일제의 탄압에 항쟁하여 일어난 민족정기의 날.

굴욕으로 사느니 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의지로 너도나도 뛰쳐나서자, 이에 호응하여 전국에서 일어나 학생이 무릇 오만 사천 여명. 혹은 쇠사슬에 묶이어 철창아래 갇히었으며 또 혹은 피를 뿜고 쓰러졌으며 그 날 그들이 높이 들었던 정의의 횃불은 그대로 역사 위에 길이길이 타오르나니 어허, 여기 흐르듯 고인 그들의 피와 눈물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여기에 서린 채 깃든 그들의 넓과 뜻은 저레의 갈 길을 밝히어 비치리로다.

단기 사천 이백 팔십 육년 십일월 삼일.

여기에 모든 뜻 있는 이들과 힘과 정성을 모아 이 탑을 세우다.

학생의 날은 날력에만 표시된 날이 아닙니다.

*** 국사대사전에서**

학생의 날 :

1929년 광주항일학생운동을 기리고 학생들의 애국심 양양과 학원의 자주 및 면학을 위하여 1953년 10월 문교부령으로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제정함.

*** 문교부, 교행정연감에서**

제2편 학교행사 교육실무,

제11장 11월의 행사교육 제2절 11월의 학교행사교육 중 학생의 날

교사에게는 스승의 날, 학생에게는 학생의 날!

전교조 서울지부 학사부

박 정훈 교사

1. 학생의 날을 스승의 날과 함께 양대 기념일로!

학생의 날은 1929년 11월 3일 전남 광주에서 있었던 항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953년 10월 문교부령으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민족 독립과 학원 자주를 위한 일제시대 학생들의 피땀의 결정체인 학생의 날은 50~60년대 학생 교사들의 노력으로 4.19 혁명을 거치며 학교사회의 축제와 자랑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70년대 들어와서 학생의 날은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해온 학생과 교사(특히 호남권)들의 노력과 국민의 민주화 투쟁과 염원으로, 1984년 국회의 결정을 거쳐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민족 독립과 학원자주,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학생의 날에 대학생들은 기념식을 갖고 의미를 되새기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당국의 기피와 교사-학생의 무관심으로, 달력에 표시된 글자 이상의 의미를 띠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5일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이라 정했다는 스승의 날이 그만큼 뿌리가 깊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반면 학생의 날은 오랜 단절속에서도 다시 회복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제 우리 교사들은 스승의 날에 선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말고 학생의 날을 학생들에게 찾아줌으로써 학생의 날과 스승의 날을 학교의 양대 기념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조회 시간과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학생의 날을 맞이하고 기념합니다. 그것은 많은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스승의 날도 있고 너희들의 날인 학생의 날도 있다, 학생은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축하한다.' 이것이면 됩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이제껏 스승의 날과 함께 자기들의 날이 있었으면서도 몰랐다는데 대한 서운함과 함께, 낮은 수준에서나마 삶의 주체로서의 자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런 각성이 조금씩 일어나고 그것이 학생과 교사사회에 대물림되어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학생의 날은 스승의 날과

더불어 교육계의 양대 기념일로 세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광주학생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광주학생운동은 통학열차 안에서 우연한 충돌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1차 세계대전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부터가 우연히 세르비아의 한 청년에게 암살당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짧은 생각입니다.

구한말 제국주의 열강이 조선을 침탈하면서 조선의 민중은 부패한 관료와 제국주의 열강의 이중적인 수탈을 받으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근대적 지식을 습득한 일부 개화 지식인들이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적 구국운동을 펼쳤지만 민중적인 토대를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취약했고, 따라서 학생들의 운동도 이러한 취약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이후 조선의 제도교육은 결국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데 복무하게 되었고 일본은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 이중적인 교육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조선 민중들에게는 저급한 실업교육을 실시하고 노동을 천시하게 하는 풍토를 조장하여 착취를 정당화하는 한편, 부유한 친일파 계층들에게는 극히 제한된 관직으로 진출하는 데에 소용되는 교육, 즉 식민지 중간 지배인을 양성하는 인문예 교육을 실시하여 일제에 순응하는 엘리트 의식을 조장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교육을 통한 민족 분열을 획책하여

식민지 지배를 순조롭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순결한 품성, 민족의 수난기에 민족의 수난을 몸바쳐 막으려는 그 헌신성을 변질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제하 학생운동의 주역들이 동경의 '2·8독립선언' 운동을 제외하면 거의 중학생들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학생들이었습니다. '2·8독립선언'이 전문학생, 대학생이 주도한 소수 엘리트만의 운동이었다면, 중학생의 주도로 이루어진 광주학생운동은 조선 전 민중의 대중적인 호응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일제하의 학생운동은 민중적인 공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3·1운동은 학생운동의 대중적인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군경의 폭압에 가장 용감하게 싸우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들은 농민이었지만, 이러한 투쟁을 고무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일경과의 충돌을 피한다는 구실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는데 항의하여 파고다 공원에서 민중들에게 공개적인 독립선언식을 하여 3·1운동을 전민족적인 독립운동을 폭발시켜 간 것은 중학생들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것, 민족자결의 내용을 알리는 선언문을 배포한 것도 학생이었습니다. 이화학당을 다니다 서울에서 3.1운동의 불꽃을 고향인 아우내로 옮겨와 부모와 더불어 선두에서 만세

를 부르다가, 부모는 일본헌병의 총칼에 맞아 죽고, 자신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하다 17세의 꽃다운 나이로 순국한 유관순도 중학생이었습니다. 3·1운동에는 전국의 200여 학교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여, 검거된 학생만 2,037명이었고 이중 634명이 기소되었습니다.

3.1운동 직후부터 학생운동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며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일본 군대와 경찰의 철통같은 감시 속에서 6·10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3·1운동 이후 1942년까지 만도 무려 445건의 항일 학생운동이 있었습니다. 조선인을 차별하는 교장 교사 배척, 조선 역사 교육, 조선어 시간 증가 등의 요구를 내걸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동맹휴학 투쟁으로 맞섰습니다.

이렇게 성숙해 나가던 학생운동의 흐름 속에서 1926년에 광주에 '성진회(醒進會)'라는 비밀 조직이 만들어져 우리 민족의 해방과 노예교육의 철폐를 내걸고 항일운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1928년에는 이경채라는 학생이 반일 유인물을 뿌리다 발각되어 퇴학당하게 되자, 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맞섰으며, 무려 4개월간의 맹휴투쟁으로 16명의 학생이 구속되고 54명이나 퇴학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학생의거는 바로 이러한 토양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30년대에 접어들면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파쇼적 군국주의를

강화해 가면서, 학생운동은 비밀조직을 강화하거나 학교를 떠나 백두산 등지의 무장투쟁으로 나서기도 했고, 일제 말기에는 학병반대, 창씨개명반대 등의 투쟁을 조직하여 맥을 이어나갔습니다.

3. 학생의 날에 되돌아 보는 교사의 역할

뱀장수가 재담을 늘어놓으면서 사이사이 후렴처럼 되풀이하는 말에 "애들은 가라"란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이 판에 주체로 참가할 처지가 아니니 가라는 것입니다. 뱀장수가 늘어놓는 재담이 음담패설류인 만큼 그럴 법한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학생들은 뱀장수의 음담패설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건전한 관심, 학급-학교의 운영, 청소년 시절에 누릴 만한 독서생활, 정서함양을 위한 제반 활동, 가정에서의 생활에서 "애들은 가라"라는 말에 짓눌려 있습니다. 학생이, 애가 공부나 하지 무슨 사회 정치에 대한 얘기나 동등.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서 나가기 위한 모든 판에서 아직 애들이라는 이유로 우리 학생들은 쫓겨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강요되는 판은 입시경쟁판 뿐이고 비공식적으로 강요되는 판은 음란문화, 퇴폐적이고 왜곡된 서구색에 찌든 문화판 뿐입니다.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발전은 억압당한 채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경쟁에서 오는

중압감을 음란 퇴폐문화의 소비자가 됨으로써 해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중·고생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고생의 모습은 생존경쟁에 시달리면서 그 중압감을 음란퇴폐문화에 탐닉함으로써 해소하고 있는 오늘날 왜소화된 어른들의 축소판에 다름 아닙니다. 사회인으로서의 건강한 관심을 억압당한 채 생존경쟁에 시달리면서 그 중압감을 음란 퇴폐문화 탐닉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어른들의 왜곡된 모습이 "애들은... 하면 안된다"는 말로 청소년들에게도 강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요구는 왜곡되긴 했지만 애정의 발로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무사히 편안히 살기 바라는 맹목적인 애정입니다. 그러나 애정과 염려가 왜곡되어 맹목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탕에는 강한 피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외세의 끊임없는 간섭 속에서 민족의 자주와 사회의 평등, 자유를 향한 노력들은 여지없이 짓밟혔고 지금도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경험 속에서 바른 말하면 다친다는 피해의식이 형성되고 이 피해의식이 무사안일하기를 바라는 맹목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불행한 역사와 그로 인해 형성된 엄청난 피해의식을 감안하더라도 어른들이 학생들에 대한 요구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요구로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현실추수적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어른 노릇을 톡톡히 해낸 것은 오늘날 중·고생 나이의 청소년들이었던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한말의 의병이나 일제하 독립군의 압도적인 연령층이 15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청소년층이었으며 3·1운동, 6·10 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의 주된 동력이 중학생(현재의 중·고생)이었고 4·19, 6·3한일협정 반대, 광주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은 역사에 대해 책임지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외세와 지배 세력의 2중 3중의 압박 속에서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장년층이 쉽게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이기주의로 주저앉은 데 비해 정의감이 강하고 생활에 부담이 없는 청소년들은 쉽게 2중 3중의 압박을 뚫고 역사에 대해 책임지는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청소년들이 한 역할을 살펴보면 "애들은... 하면 안된다"는 말은 역사와 사회에 대해 어린애로 퇴행한 어른들이 역사와 사회에 대해 어른 노릇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잘라 버리고 어린애로 주저앉히는 그리하여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진취적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기 쉽습니다.

외세의 간섭이 심한 나라일수록 학생, 청소년의 역할은 크고 빛났습니다. 국내 지배 세력의 중압에 외세의 중압까지 겹쳐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해내는 데는 순수함과 높은 정의감, 헌신성이 크게 필요했고 그 헌신성이 학생, 청소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애들은 가라"는 청소년을 비주체화하는 불구의 사회인으로 만드는 이데올

로기는 부적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우리 사회와 역사의 주인으로서 튼튼히 서 나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물론 사회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주로 짓던 과거의 사회에서는 15세 가까이만 되어도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숙련 기술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고도의 기능을 익히기까지 많은 세월이 필요해졌고 25~26세까지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때문에 과거에는 15세만 되어도 어른 대접을 했는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20여세가 되어야지만 어른 대접을 하는 변화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 노동력으로서의 완성 정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주적인 사회인으로 서는 것과 고급 노동력으로 완성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동일시하면 예컨대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미완성의 노동력이고 평생 애들이니까 싸게 마구 부려도 된다는 사장님의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일제말 암흑기에 일제에 항거한 농민이라든지, 전태일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사회와 역사를 책임지는 진정한 어른으로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적인 사회인, 진정한 어른, 주인, 주체로 서는 것은 결코 나이나 학력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외세의 간섭이 심한 우리 사회의 특수성, 맘출

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이 대접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이 우리 학교와 사회의 올바른 주인으로서 나가는 노력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남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맘출려 일하는 사람들이 참된 주인으로 서나감으로써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주춧돌이며 대들보입니다.

청소년들의 사명을 자각하여 자신이 생활하는 학교, 가정에서 진정한 주인으로서 나가려는 작은 노력들을 성실히 해 나가고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역할들을 이야기하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학생, 학생권리찾기 "

김 오열 간사

(서울 YMCA 녹색청소년단 지도)

학생이란 무엇인가?

학생(學生)은 그 뜻으로 보면 배우면서 깨우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바꿔가는 실천적이고 진취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단순히 지식적 앎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것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로서 창조적 기상과 역사,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문명을 전수하고자 하는 숭한 노력으로 문명전수자, 문화전달자로서 학생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은 어느 시대에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그 나라의 핵심적인 관심사안이 되었다.

고대의 학생은 자연현상 및 역사와 철학, 수학 등 진리를 배울수 있다는 특권으로 일부 상위계층만 특권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이들은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보다 잉여 생산물을 바탕으로 오로지 진리탐구에만 매달렸다. 이로써 엄청난 자연과학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고통받는 민중의 삶을 외면한 학생의 위치는 역사발전의 추진체는 되지 못했다.

중세시대에는 강력한 신권에 근거한 봉건적 사회속에서 학생은 폐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참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기 위한 역할보다는 신권위주의 봉건적 사회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한 역할이 강했다.

이후 중세시대의 몰락과 더불어 신흥 자본가계층과 시민계층이 성장하면서 학생은 기존의 사회질서에 도전하는 주체세력이 되었다. 자유와 민주의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사상을 배운 학생들은 사회를 이끌어갈 주도세력으로 성장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에 학교가 설립되었고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약소국의 독립과 주체성 확보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

하지만 서구 선진국의 학교학생과는 달리 2차 세계대전후 신흥 독립국에서의 학생은 독재정권의 성립과 더불어 역사성과 주체성을 상실하고 독재정권에 안정을 주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국가로부터 일방적인 교육을 받았다. 이로부터 학생의 지위와 역할은 사회의 주변인으로 자

신의 목소리가 없는 국가로부터 일정기간을 보호받는 역할로 추락한 것이다.

이처럼 학생은 교육을 받는 자로서 사회현상과 무관하게 있는 신분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일부분으로 역사성과 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역사속의 학생

고대국가가 건설된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와 지방에서 사설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 학생의 신분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학생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특권적 지위를 갖는 계층만이 누릴 수 있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는 국가운영을 위한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지위를 주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산현장에서 멀어져 특권적 신분을 누렸다. 그래서 학생은 사회의 생산력을 맡았던 천민 및 평민계층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또 대부분이 양반계층이었다. 이들 양반계층이 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사회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한 역할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신분제 사회구조의 몰락과 더불어 학생은 평민계층의 계층상승의 욕구와 더불어 폭발적으로 늘었고 근대 신학문이 도입되면서 자유와 평등이념과 민권의식이 확산되는 역할을 학생들이 담당하였다.

하지만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학생들은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쟁주의, 학벌주의, 기능주의에 매몰되 대학이라는 관문으로 양분화 되었다. 대학은 산업사회를 이끄는 주도세력을 양산하는 역할로 사회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략했고, 중·고등학교는 이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입시위주의 학원으로 점차 전략하고 말았다. 역사속에 살아있는 학생의식을 버리고 나만 출세하면 된다는 최고점수, 일등주의에 사로잡혀 역사성과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새벽부터 저녁늦게까지 학교에서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중·고생들과 사회에 나가 직업을 구해야하는 직업소개소의 역할로 전략한 대학과 대학생들이 이 시대 학생대중의 현실이다.

오늘날의 학생과 학생의 날

오늘날의 학생들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발전은 억압당한 채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경쟁에서 오는 중압감을 음란·퇴폐문화의 적극적 소비자가 됨으로써 해소하고 있다. 오로지 앞과 위만 바라봐야하는 획일적 사회에서 학생들은 일등, 일류, 성적, 최고점수, 최대, 최우수, 금메달만을 강요당했으며, 이러한 문화는 과정과 수단이 무시되고 결승점만 바라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리고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는 다른 형태의 이웃없는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늘날의 중·고생의 모습은 생존경쟁에 시달리면서 그 중압감을 음란·퇴폐문화

에 탐닉함으로 해소하고 있는 오늘날 왜소화된 어른들의 축소판에 다름 아니다. 이렇듯 어른들이 만든 외형과 허세의 사회속에서 학생들의 희망찾기, 권리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사회의 위험 상황에서 소외당하고 홀로된 사람들을 뒤에서 떠받치고 지지해 줄 공동체가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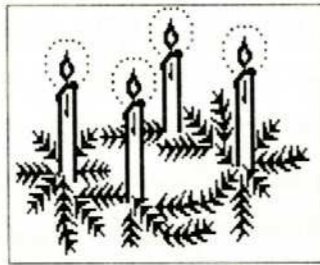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민족의 자주적인 독립과 학원자주를 위한 일제시대 학생들의 피땀의 결정체인 '학생의 날'은 진정 살아있는 날로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기피와 교사-학생의 무관심으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현실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날로 새롭게 인식하고 후배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의 날 - 학생권리찾기

이제 학생의 날을 맞아 이 사회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사회로 변하기를 원한다. 불안하고 우울한 생활에 '따뜻한 화롯불'처럼 위로와 격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이웃에 대한 관심, 상부상조의 생활협동의 문화, 자원봉사 참여 등의 활동이 '따뜻한 화롯불'처럼 무관심, 개인이기주의, 가족이기주의, 사회적 약자(가난한, 병든, 나이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무시를 극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서로에 대해 관심과 협력이 있는 사회, 사회적 어려움을 개인이 동참하여 나눌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라야 학생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해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학생은 의무와 책임만 있었고 권리는 없었다. 역사속에 살아있던 학생의 상(象)을 오늘날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일방적인 교육과 요구는 학생들의 자유스럽고 창의적인 활동을 방해했다. 이제 그동안의 보호받고 규제당한 신분에서 학생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참여하는 주체적인 학생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역사속에 살아있는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후배 학생들이 이어받아 21세기를 우리의 힘으로 열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권리찾기의 작은 걸음이 시작되어야 한다.



학생의 날을 되돌아보며, 오늘 우리를 보며

권 성훈

(자양고 2, KSCF 고등부)

안녕하세요? KSCF 고등부(SCM)활동을 하고 있는 자양고 2학년 권성훈입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는 10년전 올림픽까지 치루고 현재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개최 준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한국이란 이름으로 당당히 세계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독립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야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의 엄마에게서 태어났으니 독립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지만, 더 오래전에는 독립을 열망하고 이를 위해 목숨까지도 던졌던 선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합니다.

이화여고 성극반에서 준비한 광주학생운동 유래극을 보면서 전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5만4천여명의 학생들이 단결해서 자기의 삶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분들 가운데 학생의 날이 11월 3일인지 아셨던 분 계십니까? 또 학생의 날이 왜 생긴 줄은 아십니까?

전 11월 3일날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서 돌아와 밥을 먹으며 TV를 보고있었는데 한

프로에서 "오늘은 학생의 날이군요"하고 말을 했습니다. 전 어찌나 화가 나던지 다시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은 아니더라도 담임선생님께라도 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린이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은 챙기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왜 엄연히 달력에 쓰여진 학생의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왜 우리는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사회적으로도 전혀 이 날을 인식하고 있지 않고 학교에서도 특별히 학생의 날이라고 기념하기는 커녕 입시위주의 수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린 어느새 역사도 잃어버리고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서 로미 즉 고소영은 노예팅에서 만난 정우성에게 야구장에 가서 경기내용을 알아오라고 시키곤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에게 자신이 공부하는 안하고 야구만 본양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내 경

쟁자를 하나라도 물리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울대 총장이 자기 딸을 몇천만원을 들여 불법과외를 시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때에 70년전으로 거슬러서 우리에게 이런 식민지의 비극이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서 학교를 휴학한다거나 거리에서 함께 투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순수한 피를 나라를 위해

『 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본 우리의 생각② 』

이제는 우리의 책임을 생각해야 할 때

우 하린

(한성여고 2, 서울 YMCA)

안녕하세요? 쌀쌀한 요즘,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신 학생 여러분들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YMCA녹색청소년단 활동을 하고 있는 한성여고 2학년 우하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우리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주인이면서도 당당하게 집을 가꾸지 못했던 때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우리 학생들의 힘이 컸습니다.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운동인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스스로가 민족 독립 투쟁의 중요한 존재임을 자각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자각심을 높여주었고 나아가 만주·일본 지역에 퍼

길 위에 뿌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학생의 날의 정신을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학생들 스스로 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었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들이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친구들이 경쟁자가 아닐 진정한 친구로 동지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있던 동포들에게까지도 항일 운동에 가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참주인은 주체의식과 자아발견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수행해 나아갈 때 바로 주인의 위상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70여년 전의 우리의 선조가 학생의 신분으로써 우리 나라를 지켜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생의 신분으로써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들의 관심을 '환경'으로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의 미래는 짙은 회색으로 채색되어있고 우리의 후손이 지금의 저희들처럼 학생의 신분이 되어있을때 지금 이 순간의 덜 오염된 환경을 기억못할런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인 예로 사시사철 변화하는 산의 아름다운 자태와 시원한 물맛을 모른채 그들은 사방이 높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고 손바닥만한 크기의 하늘마저도 검은 연기에 뒤덮힌 삭막한 도시 공간만을 그리워하며 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은 우리들에게 그것도 청소년기에 나쁜만 아니라 나와 가족,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나라와 지구를 생각하며 주체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닐까요? 오늘의 '학생의 날'을 맞아, 우리의 선조가 국권이라는 주인의

『 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본 우리의 생각③ 』

우리의 자존심을 지킬 때

이 연옥

(이화여고 1학년, 서울YWCA)

길을 걷다보면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출근길에서 양복에 넥타이를 맨 사람들은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걷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획일성을

위상을 확립하였듯이 이 자리에 모인 저를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출발의 날로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힘들 때면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과 학생의 날의 의의를 다시금 떠올리며 서로의 어깨를 다독거릴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작은 일을 늦추기엔 남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의 위력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힘이 보태진다면 더할나위없이 기쁘겠습니다.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추진력으로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온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비슷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무리 중에 튀는 사람이란 세인의 눈을 끌게되고, 주목을 받게되면 그에 합당한 질타 등의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입

니다. 그러나 마음속엔 튀고 싶어하는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어른들에게 획일화된 모습은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학생은 같은 교복을 입고 다녔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그 윗세대 어른들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우리의 어른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개성'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다지 생소하지 않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좋아하고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많은 단어가 나오겠지만 그중 하나가 '개성'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른들과 달리 TV라는 것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했고 비교적 자유로이 의사 표현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는 모두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소리 높이는 'OOO를 좋아해'를 예로 든다면 그 사람이란 대부분 TV에 나오는 등장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률적인 학교 교복의 모습이 싫다고 줄이거나 장식을 달고 다니면 그것이 유행이 됩니다. '모방성'이라는 것이 청소년기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별 비판 없이 보이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교복을 줄여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줄인다는 의미가 몸에 맞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복을 줄이는 아이들은 '좀더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어서', '좀더 특별한 모습을 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불편해 보일 정도로 줄인 치마통이나 바지통을 보는 어른들의 시선을 곱지 않습니다. 비단 어른뿐 아니라 또래의 눈에도 그다지 예뻐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듯 좋아 보이지도 않는 모습을 개성이란 이름으로 시작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모습들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자신감을, 그리고 더 큰 다음에는 어른으로서의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려면 지금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다움으로 그리고 어른은 어른다움으로 말입니다. 자신감을 갖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의 '자존심'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비판 없이 남을 따라 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찾아가고 진정한 개성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학생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교복, 그리고 학생이라는 신분에 맞는 행동, 스타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가 아닙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 학생의 날을 맞아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

'학생의 날'을 앞두고

조 원배 선생님

분필가루 묻은 가난한 손으로

먼저, 축하해요! 내일이 여러분들 날이죠? 함께 기뻐하고 싶고 또 뭔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 가진 것이라곤 분필가루 묻은 가난한 손밖에 없네요. 히~ 그래도 뭔가 나도 여러분들의 날을 맞아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 싶어 시(詩) 두 개를 골랐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부족하고 모자란 선생에게 축하를 해주고 꽃까지 건네주던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하면 참 하잘 것 없는 선물이지요. 아마 이 시들이 맘에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내 편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쉬우면서도 뜻있는 걸로 고른답시고 꽤나 공들여서 고르고 골랐던 시예요. 어쨌거나 이 하잘 것 없는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안겨준다면 선생님은 정말 기쁠거예요.

춥고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창 밖 나뭇잎들을 보니 가을도 꽤나 깊은 것 같네요. 어제 내린 가을비에 노란 핏방울처럼 점점이 땅에 떨어져 젖어있는 은행잎들이 짙은 쓸쓸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고운 색깔들로 예쁘게 물든 나뭇잎들이 꽃보다 이쁜 모습으로 세상을 환하게 빛내고 있으니깐요. 이리다 또 금새 겨울이란 녀석이 우리 코 앞에 우뚝 서서 우릴 움츠러 들게 하겠지요. 그렇지만 가만히 저기 서 있는 나무들을 보세요.

내년 봄에 더 많은 꽃과 열매들을 맺기 위해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춥고 혹독한 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모든 잎들을 떨구고 단단히 맘 다잡는 저 가을 나무들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 가을나무들처럼 더욱 풍성한 내년 봄을 위해 잘라낼 건 잘라내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아무진 마음으로 겨울을 맞았음 좋겠어요.

스스로를 아끼고 가꿀 수 있기를

'선량(善良)하면서도 나약하지 않고, 냉철하면서도 비정(非情)하지 않고, 치열하면서도 오만하지 않는' 그런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아끼고 끊임없이 가꾸었

으면 해요. 왜냐구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자랑스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수업시간에도 자주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불행했고 안타깝던 근현대 역사에서 여러분들만큼 당당하고 바르게 진리와 정의를 위해 행동했던 사람들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주인인 날이니깐 좀 의젓해져야 되잖아요. 자랑스런 전통과 뜻을 되새기며 더욱 멋있는 학생이 되도록 다짐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학생의 날'을 보다 뜻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암튼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날인 '학생의 날'을 맞아 선생님은 뜨거운 가슴으로 열렬히 축하 드립니다. 그럼 늘 건강하고, 아름답게 생활하는 예쁜 여러분들이 되시길...

내가 지금보다 어렸을 적엔

1.

내가 지금보다 한참 어렸을 적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었지
그러나, 세상을 살며 난 알았네
고운 사람 하나 만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
.....

내가 지금보다 한참 어렸을 적엔
꿈이 참 많았지
그러나, 어른이 되어 난 알았네
꿈 하나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

2.

내가 지금보다 한참 나이든 뒤에
난 무슨 노래를 부르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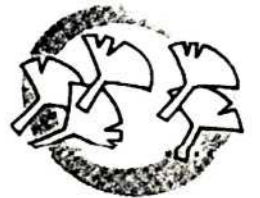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가문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테니
.....
.....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걸어가렴, 어느 날 그대 마음에 난 길 위로
그대 꿈꾸던 세상의 음악 울릴테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거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시작해야 할 때인 걸

위의 시는 내가 좋아하는 백창우라는 음유시인이 젊은 날에 썼던 시들인데,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 골랐어요. 때론 고단하고 힘든 학교 생활, 뭔가 꼭 막힌 것 같은 답답함에 짓눌려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여러분의 안쓰런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때론 철딱서니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경박하게 자신을 마구 내팽개치는 여러분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볼 때도 속이 많이 상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고른 건지도 몰라요.

암튼 스승의 날 여러분들께 축하를 받고 나두 여러분 날을 맞아 이렇게 축하를 해줄 수 있어서 참 기쁜 마음으로 펜을 놓습니다. 그럼 진짜루 안녕~



"학생권리찾기 선언"

1929년 11월 3일,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삭이고 있던 젊은 학생들이 이 민족에 행해지는 불의에 맞서 일어섰다. 그들로 인해 한번 불은 불길은 이 나라 온 산하를 뒤흔들었다. 그 뜨거운 불길 앞에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지는 아픔을 감수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날의 함성과 이 땅을 사랑했던 젊은 학생들의 열기는 4.19 혁명과 5.18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지금도 면면히 우리들 가슴속에 살아오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학생의 날 행사를 갖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이제껏 사회는 우리에게 앞과 위만 바라보게 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게 하였다. 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친구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각종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우리들의 인권은 침해당해야 했다. 학교 밖에서는 각종 유해한 환경들이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어 건전한 우리들의 청소년 문화는 찾아보기 힘들며 외국문화와 퇴폐문화에 길들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보호받고 규제 당한 대상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책임 있는 학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해 선배들의 얼을 되살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고 희망찬 21세기를 열고자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 주어진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모은다.

1. 우리는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반대하며, 자유롭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
2. 우리는 성별, 성적 등 어떠한 기준으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우리는 유해한 환경에 반대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우리는 창의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 우리는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의제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6. 우리는 자유롭게 청소년의 문화를 향유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
7. 우리는 노동권을 가지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정부와 학교, 지역사회에 요구할 것이며,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1998년 11월 7일

학생의 날 기념 및 축하행사 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서울YMCA, 서울YWCA)

수업 및 학급 실천 사례

① 꽃 한송이를 칠판에 / 서울 〇〇중학교 교사

제가 학생이나 학급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학생의 날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고민하지 못했고, 교직에 들어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아 말씀 드리기 부끄럽습니다. 작년에 학교를 옮겨 중학교에 왔는데, 작년에 실천 한 것을 소박하지만 말씀 드리고, 앞으로 실천할 계획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당시 담임이 아니고 비담임이어서 다섯 반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에 온지도 얼마되지 않고, 주변에 호응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없었고, 어떻게 할지 몰라 혼자 고민하다가 수업에 들어 갔습니다.

오늘은 '학생의 날이다'고 얘기하고 처음에는 학생의 날이 어떤 것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혼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체로서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간단한 민중의례를 했습니다. 그후에 꽃을 한 송이 포장해서, 칠판에 "축 학생의 날" 이라고 쓰고 거기다가 스키치테이프로 붙였어요. 붙인 다음에, 다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스승의 날 많은 꽃을 받았는데 이렇게 한 송이만 준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업이 다 끝날 때까지 한 반도 꽃을 떼 반이 없더라고요.

꽃 달아 주고 난 후에 돈이 없으니까 그 빅파이라고 있더라고요, 짠 건데 그 빅파이를 사다가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 두고 교탁 위에다가 빅파이를 여러 개 쌓아 놓고 성냥개비를 꽂아 두고 학생대표 몇명 나오게 해 불을 끄고 박수 치고, 다음에 그 시간에는 수업을 하지 않고 아이들 장기자랑을 했어요. 장기자랑에서 불러 나와 노래를 못 부르는 학생같은 경우에는 자기 느낌이나 소감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하루를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② 광주 학생운동을 재현한 가장행렬 / 동부지역교사

저는 학생들이 흥미 위주의 행사만을 좋아 하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도서관을 맡고 있을 때, 학생주간 행사를 무엇을 할까 학생들이 토론하여,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해요. 무엇을 할까 논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연애소설 얘기도 나오고 하더니, 결국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얘기도 좀 하겠네요.

준비기간이 10일이었는데, 자기들끼리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사전 토론과 평가를 거쳐 행사를 했는데 예상보다 꽤 많은 학생들이 왔더라고요. 음악실이 꽉 차서 서서 듣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진지한 토론과 질문이 이뤄지더라고요. 그 때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알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사가 설문조사를 하면 과연 자기 생각을 그대로 쓸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학생들의 의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어요.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학생의 날과 축제가 겹쳤었는데, 학급 전원이 참석한 가장행열을 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너희들 소신껏 하되 5분내에 끝내기만 하라고 했는데, 정말 5분 내에 끝내더라고요. 운동장 전체를 활용하여, 당시 광주학생운동을 재현하는 것이었는데, 연출을 맡은 애도 기가 막히고, 자기들끼리 역할 분담해서 잘 하네요. 제가 한 일은 농민복, 총, 칼, 순사복 등 각종 소품만 구해다 주면 되었어요. 그걸로 찢고, 칠하고, 온갖 것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가장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학생들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맡겨 주면 정말 잘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담임반이나 수업시간에 들어가 혼시라기 보다는 얘기를 좀 하고, 노래가 있는데 노래를 아느냐? 제가 직접 2절까지 불러 주고(스승의 날 애들이 불러 줬으니), 광주학생탑 비문같은 것을 읽어 줍니다. 다음에 전개 과정을 쪽 얘기해 주고 오늘은 이러 이러한 날이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땡땡이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나오라고 하고 의미 있는 노래를 얘기 하라고 하여 그것을 같이 부릅니다. 그후에는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전체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소품을 좀 준비하는 편이어요. 노래, 비문, 기타 자료들을 준비 하니까 의미 전달도 좀더 나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담임회의 같은 데서 얘기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몇 년을 실천 하면서 느낀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덜 고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회가 튼튼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측과 대등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야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애들을 잘 대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학생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저로서는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학생회가 올바른 형태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학생들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빠져서 헤어 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누가 책임지겠는가? 자기들이 학교와 대등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을 때, 자기의 일을 좀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

되었을 때, 주눅들지 않은 학생,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도 학생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 해결의 길도 빨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회를 충실히 만들어 나가는데 혼화나 모든 실천들이 일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④ 대물림하여 넓혀 가야 할 학생의 날 / 강남지역교사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대개 축제 기간과 학생주간이 겹쳐요. 87, 88년 이후 학생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고 평교협도 생기고 해서, 88년 축제가 대단했었어요.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 학생주관을 생각하지는 못 했는데, 풍물반의 경우 학생자살 문제를 가지고 사례를 쪽 모아서 차트 글씨쓰고 신문 오리고 등등 해서 실내 전시회를 했어요. 저같은 경우는 역사동아리에서 '사제간에 이래서 될 것인가?' 강남의 좀 비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서로 이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제간의 올바른 방향 정립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하고 학교 축제가 너무 하루 즐기는 것으로 흘러 가는데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져 봤습니다.

그런데 호응은 상당히 없었어요. 학생들 모으기도 힘들었고, 우리 동아리의 자긍심을 지키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다음을 보면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았어요. 학생회 간부들이나 선생님들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을 확산시켜 축제 때 단순한 놀이가 아닌 학생들에게 현실을 인식시켜 주고 의식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 좀 하자 해서, 그 다음 해에는 다른 동아리에서도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토픽 주제로 삼았고, 저희 동아리에서도 해방전후를 중심으로 정치운동가들의 활동에 대해서 전시하고 토론도 가져 보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현실을 풍자하는 만화 전시도 했었어요.

그런데 90년 이후에는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동인회 같은 몇몇 학생들이 모여 동인회 활동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정식으로 학교에 등록해서 동아리로 활동하는 경우도 몇몇 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올해에는 실내 전시도 전시지만, 학생의 날의 의미도 생각해서 독립운동과 관련있는 실외 행사 같은 것도 잡아서, 축제 때 좀 보람있는 것을 찾아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 때, 제가 중요시 하는 것은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의식형성이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의학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람이 나이 30이 되면 의식이 프라스틱처럼 굳어진다고 그래

요. 자기가 분명히 나쁜 점을 갖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자기합리화, 정당화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도 고등학교 때와 대학 초반이 상당히 인생에서 의식형성에 중요한 시기로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또는 학생의 날 혼화나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감화, 감동, 그 때 인상 깊게 느꼈던 것들이 평생 잊지 않고 자기를 지켜 갈 수 있는 힘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학생의 날이 앞으로 좀더 강조되고 부활되고, 많은 행사가 본격적으로 치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께도 이런 뜻이 전달되어 동시에 실천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실천하고, 그런 자세 확립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느끼고 대 물림하여 넓혀 갈 수 있는, 올해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⑤ 기타 제안

- 학급 또는 수업 중 기념식 · 학급잔치 · 글쓰기, 웅변 · 기념 모듬별 체육대회
- 요리 시합 ·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 유적지 견학, 등산, 야유회 · 등산
- 장기자랑 · 공개토론회 · 전시회 · 학생회 박물관 · 선물주기 · 퀴즈대회
- 3분말하기 · 기념품 만들어 갖기(책받침 등 모듬별로 결정) · 설문조사 및 토론

1) 책받침 만들기

그 전에 다음 시간에 책받침을 만들 것이라는 예고하며 내용을 생각하거나 준비해 오게 한다. 도화지를 나누어 준 후 모듬 별로 또는 개인 별로 그림을 그리고, 학생의 날 노래, 의미, 시 등을 적어 넣게 한다. 그 후 거두어서 코팅을 하여 나누어 갖거나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한다. 시간 1시간, 코팅 비용이 든다.

2) 3분 말하기

교사-학생 관계, 내가 바라는 교사-학생, 학생의 날 부활, 일제 잔재와 교육, 10년 후의 학생과 학교, 학생들의 고통, 학생 자살, 내가 당시학생이라면, 학생의 날의 의미, 학생 자치 활동, 청소년 문화, 현재 우리 학교의 문화, 학급 자치와 학생의 날, 광주 학생 운동 계승 방안, 민족 독립과 통일에 대하여 등등.

* 이 자료는 전교 서울지역에서 학생의 날과 관련하여 찾아주신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orea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고등부(KSCM)

1. 역사는

1970년대 이 땅의 수많은 고등학교기독교학생들은 기독교 학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의 여러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국의 150여개 학교(배재, 경기, 송실, 오산, 보성, 송의, 서울예고, 이화, 기전, 신흥, 계성, 금성, 이리, 대전, 세광, 경안, 안동, 인성, 여수, 매산, 포항 고교 등)와 학생, 그리고 기독교사들이 함께하는 곳곳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바탕으로 기독교 학생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7년 학도호국단 설치령으로 인하여 80여 지구의 학내활동이 어렵게 되고 해체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태백, 이리, 안동, 청주 등의 지구에 남아있는 기독교 학생들에 의해 면면히 이어져 오던 고등학교기독교학생운동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 현재는

1998년 현재의 KSCF 고등부는 서울의 각급 고등학교에서 동아리로 활동하며 충남 논산 전양고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된 활동은 1. 문서사업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하시는 교사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 "청소년 바로보기"를 발행하고 있고 2. 학원선교사업으로 각급 학교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기독교사운동 모임을 준비하고 있고 3. 사회선교의 일환으로 학교별로 지역의 사회시설과 연계하여 매월 봉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4. 훈련 및 연구사업으로는 여름수련회와 매월 시행하고자 주체별 월례강좌를 통한 학생지도력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5. 전국단위의 주요행사는 학생의 날 기념행사, HOME COMING DAY!, 겨울대회 및 총회, 고난주간 - 소외된 자들과 함께!를 계획하고 있다.

3. 앞으로는

그러나 이에 앞서 기독교 학생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조금씩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모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날로 혼탁해지고 험해지기만 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독교 청소년들이 되도록 돕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청소년 운동체로 자리하려고 한다. 이 땅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고등부(SCM)이 되고자 한다.

서울 YMCA

1. 서울YMCA 청소년 활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단체로서 95년의 역사를 자랑하듯 본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활동은 역사가 말해주듯 수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가치와 문화를 형성하고자 활동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YMCA는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고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청소년환경운동, 영상운동, 청소년 녹색소비운동 등 각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YMCA에서는 각 학교 클럽활동으로 중학·고교Y가 있고 청소년 환경운동으로 녹색청소년단, 영상운동으로 1318청소년방송국이 있다.

2. 청소년운동의 새로운 활력-녹색청소년단

1998년 현재 녹색청소년단은 자치적인 연합활동모임으로 환경을 주제로 청소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1995년 생태환경캠프를 시작으로 조직된 녹색청소년단은 환경문제에 관한 교육 및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환경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활동을 보면, 매년 7-8월 생태환경캠프를 실시하고 있고 도시하천의 문제를 청소년 시각에서 접근한 도시하천살리기운동, 겨울철새탐사, 환경기행, 녹색소비모니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 시작한 '푸른산지킴이 백두대간 녹색규찰활동'은 청소년들이 직접 우리나라 생태계의 골간인 백두대간을 찾아가서 야영을 하면서 자연의 참다운모습을 체험하며 자연파괴행위를 감시, 모니터하여 발표하였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백두대간 전구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3. 청소년 환경운동은 나로부터.

녹색청소년단이 그동안 활동하면서 큰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3가지이다. 첫째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녹색청소년단 활동은 환경운동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의미에서 각 지역에, 각학교에 녹색청소년단을 구성하여 자발적인 청소년환경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둘째는 각 지역의 청소년 환경운동가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환경운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일이다. 우리지역의 환경문제를 전국의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대처해가기 위한 연대의 활동인 것이다. 이를 위한 우리들의 지침서를 우리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셋째, 지역환경의 파수꾼으로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체험활동, 감시활동, 모니터활동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 이제 청소년 환경운동을 나로부터 합시다.

연락처| 서울YMCA 녹색청소년단 T:725-5828/9

서울 YWCA - Y틴

<Y-틴이란?>

Y-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라게 한다. 세계 이웃과 친선을 도모한다. 개성을 발전시킨다'라는 Y-틴 목적에 찬동하는 13세이상 18세미만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클럽이며 회원 스스로가 각 클럽의 프로그램을 계획·활동·평가하는 청소년 자치활동 부서이다. 현재 Y-틴은 11개 중학교에 11개, 24개 고등학교에 26개의 학교 클럽과 3개의 센터클럽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클럽은 학교 안에서 환경운동과 바른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기독교청소년클럽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센터클럽은 연극, 영어회화, 독서토론 등의 특색을 가진 클럽들로 되어있다.

Y-틴의 주요활동내용은 건전한 청소년문화형성사업으로 청소년축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각종 청소년특강, 학생보호운동을 개최하여 청소년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청소년들을 밝은 문화로 선도하고 있으며 농촌지역교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선교봉사활동과 전국 협의회, 전국 대회 등의 회원캠프를 통하여 회원화합과 다양한 지도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지도력을 개발하고 있다.

중학Y-틴클럽 : 금란, 동구, 배화, 보성, 송곡, 이천양정, 영란, 정신, 정원, 한성, 월촌
(11개 학교 11개 클럽)

고등Y-틴클럽 : 금란, 동덕, 무학, 배화, 보성, 성신, 송곡, 숙명, 승의, 신광, 광명, 이천양정, 이화(우리들, 오딘, 초로), 정신, 정의, 중앙, 풍문, 동구여상, 성덕여상, 영란여상, 송곡여상, 경기여상, 명지고, 경성고 (24개 학교 26개 클럽)

센터클럽 : OAK, ATOM, SCENE (3개 클럽)

<Y-틴 목적문>

Y-틴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을 본받아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Y-틴의 주요행사>

신년기도회, Y-틴 새로배움터, 클럽인증식 및 부활절 예배, 청소년 축제(단오제), 농촌선교봉사활동, 근로봉사캠프, 성탄제, 졸업축하모임, 청소년특강, 클럽발표회가 있고 그 외에도 leadership training 프로그램도 있다.

학생의 날 노래

이은상 작사
안병소 작곡

Maestoso

1. 우 리 는 이 나 라 자 손 이 다
2. 우 리 는 기 문 찬 점 본 이 다
3. 우 리 는 피 끓 는 학 생 이 다

mp > *f*

예 서 내 - 살 과 - 비 받 고 자 랐 다 - 내
보 라 전 - 용 의 힘 찬 가 승 캄 다 - 내
오 직 바 른 길 안 이 무 리 의 생 명 - 모

con appa > *molto cresc* > (*piu allargando*)

국 토 위 해 서 라 면 물 볼 속 에 라 도
겨 레 위 해 서 라 면 종 갈 앞 에 라 도
이 자 용 처 나 가 자 정 의 외 헛 불 을

뛰 어 들 마 뛰 어 들 - 아
달 려 들 - 아
놀 이 놀 고 놀 이 들 - 고

11월 3일 학생의 날

역사를 품어라, 내일을 열어라!

'98 학생의 날 기념행사 및 축하행사



일시: 1998. 11. 7 (토) 오후 2시 / 장소: 이화교회(이화여고내) / 주최: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서울YMCA, 서울YWCA / 후원: 청소년보호위원회



'98 학생의 날, 우리가 보낸 하루는요...

식·전·행·사

고딩들이 만든 영상작품의 세계 - 삼대구년, 아름다운 하루

여·는·무·대

보성여고 소리여울의 풍물과
장빈 목사님의 사회로 KSCF 총무이신 박종렬 목사님의 인사말

기·념·행·사

이화여고 성극부의 학생의 날 유래 알럼극,
자양고 2학년 권성훈, 한성여고 2학년 우하린, 이화여고 1학년 이연옥 학우의 생각,
그리고 학생의 날 행사에 참석한 우리 또래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
이화외국어고등학교의 박정훈 선생님의 이야기와 서울YMCA의 김오열 선배의 이야기.
그리고 다함께 부르는 노래
상록수, 저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축·하·행·사

조충철 선생님의 사회로 경신고 포르메, 정의여고 에스더의 중창,
정신여고 선교부의 워십댄스,
초청가수 새하늘 새땅의 공연에 이어지는
인천 사랑방교회 친구들의 댄스 댄스...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

달·는·무·대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모은 선언문과 상징물
다함께 부르는 노래
바위처럼, 시련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는 ~

이쯤 하면 내년에 다시 모였을 때 서로 어색하지는 않겠죠?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